



백석평전

안도현 지음

백석의 생애와 문학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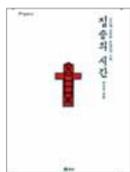
해방 이후 후대 시인들에게 폭넓은 영향을 끼친 백석의 생애를 다룬 평전이 나왔다. 안도현(우석대 문학과 교수) 시인이 펴낸 '백석평전'은 백석의 생애와 문학을 조명한다.

저자는 1980년 스무 살 무렵 백석의 시 '모닥불'을 처음 접한 후, 그때부터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백석 이야기는 고향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던 시간을 기점으로 오산학교 재학시절, 일본에서의 유학 생활, 사랑에 관한 일화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담겨 있다.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백석의 생애는 한편의 시를 떠올릴 만큼 드라마틱하다.

저자에게 백석의 생애를 복원하는 것은 "그를 बे끼는 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85세로 세상을 마감한 백석의 생애 안도현 시인의 손끝을 통해 생생하고 감동적으로 살아난다. <다산북스·1만8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집승의 시간

박건웅 지음

만화로 그린 남영동 고문

고(故) 김근태 전 의원이 남영동에서 겪었던 고문 과정을 그린 만화가 출간됐다.

만화가 박건웅이 그린 '집승의 시간'은 김 전 의원이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의장으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다가 연행돼 1985년 9월에 20여일 동안 고문당하며 조사받은 과정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김 전 의원은 같은해 12월19일 법원에서 고문의 실상을 고백했지만 조작된 자백을 근거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986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형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5월 김 전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564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에는 대공 분실에서 자행된 물고문, 전기고문 등 10여차례의 고문으로 집승 같은 시간을 보내야했던 김 전 의원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저자는 고문을 가한 이들도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보리·2만8000원> /김정인기자 kki@



신호와 소음

네이트 실버 지음

"미국인에게 새로운 천 년은 끔찍한 사건과 함께 시작되었다. 미국인은 2001년 9월 11일 사건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문제는 정보 부족에 있지 않았다. 9·11테러가 있기 60년 전에 진주만이 일본에 기습 공격을 당할 때처럼, 그런 일이 있으리라는 온갖 신호가 분명 있었다. 그런데 미국인은 그 신호들을 온전하게 하나로 꿰지 못했다. 테러리스트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밝히는 적절한 이론이 부족해서 미국인은 그 많은 신호에도 눈뜰장남이었고, 9·11테러나 진주만 공습은 미국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미지'였다." <본문 중>

인간이 지닌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예측하기'다. 브라질 월드컵 최종 우승국은 어느 나라일까? 7·30 재보선은 어느 쪽이 승리할까? KIA타이거즈는 가을 잔치에 초대될 수 있을까? MIT 신경과학자인 토마스 포조는 인간은 반복 양상을 발견하려는 욕구가 강하다고 본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일반화하려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는 의미다. 누군가는 21세기를 '빅 데이터'의 시대라고 말한다. '정보의 홍수'라는 수사

세계적 통계학자, 예측에 관한 다양한 양상 분석

로는 진부할 정도로 데이터 양이 폭증하고 있다. 특정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이 시대.

통계학을 기반으로 잘못된 정보('소음')를 거르고 의미 있는 정보('신호')를 찾는 방안을 모색한 책이 나왔다. '패스트컴퍼니'가 선정한 가장 창조적인 인물 1위에 오른 통계학자 네이트 실버가 펴낸 '신호와 소음'은 예측에 관한 다양한 양상을 분석한다.

저자는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50개 주의 결과를 모두 맞춘 뛰어난 예측가다.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예측의 천재'라고 부르는 이유다. '신호와 소음'은 통계학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미래를 예견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책은 뉴욕타임즈 15주 연속 베스트셀러와 '아마존'의 올해의 책(논픽션 부문)에 선정될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저자가 제시하는 각각의 사례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다. 정치, 경제, 스포츠, 기후, 전쟁, 테러, 전염병, 도박 등 일상상의 모든 관심사를 포괄한다.

네이트 실버가 신호와 소음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통계학의 '베이지 정리'다. 명목적으로 보자면 수학의 정리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을 내포하는 게 베이지 정리다. 요약하면 이렇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생각에 대해, 그리고 그 생각들을 검증하는 방식에 대해 각기 다르게 생각해야 함을 의미한다. 확률과 불확실성을 좀 더 편안한 마

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또한 우리가 문제 삼고자 하는 가정이나 믿음을 좀 더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함을 의미한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자. 일반적으로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면 나올 확률은 50%다. 이 확률은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값에 해당한다. 일명 '빈도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베이지주의'는 '찌그러진 동전'을 던졌을 때까지도 상정한다. 즉 공장에서 '찌그러진 동전'이 생산될 확률(사전 확률)까지 가정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확률은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 수정돼야 한다는 관점이다.

베이지 정리는 스포츠와 게임 같은 확률 외에도 존재론적 유형의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 금융시장의 거품, 테러 등 위협적인 문제도 대처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그러나 문제는 정보를 수용하는 우리의 인식에 있다. 즉 지나칠 정도로 "선택적으로, 주관적으로, 그리고 해당 정보가 유발할 수 있는 왜곡에 크게 경계하지 않고 정보를 지각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말한다. 신호(의미 있는 정보)는 진리다. 소음(잘못된 정보)은 우리가 진리에 다가서지 못하게끔 우리의 정신을 산만하게 한다고. (며칠 전 편집국 기자들이 월드컵 한국 축구팀 관련 배팅을 한 적이 있다. '베이지주의'를 좀 더 일찍 알았다면 배팅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더퀘스트·2만8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저자 네이트 실버는 9·11테러는 분명 '신호'가 있었지만 미국인들이 알아채지 못했다고 말한다.

인체 유래 물질 소유권 연구자가 갖는 것이 정당한가?



한국 생명공학 논쟁

김병수 지음

줄기세포는 만능의 열쇠인가? 유전자 조작식품은 과연 안전한가?

1999년부터 최근까지 전개되었던 생명공학에 관한 사회적 논쟁을 다룬 책이 나왔다. 국민대 사회학과 김병수 연구교수가 펴낸 '한국 생명공학 논쟁'은 생명 윤리법 제정 운동, 유전 정보 보호 운동 등을 정치하게 들여다본다.

생명공학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 가운데 가장 큰 이슈는 '생명윤리법' 제정 운동과 황우석 박사 논문 조작 사건이었다. 이 두 사안은 한국 사회의 생명공학에 드리워진 민낯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계기였다. 책의 구성은 크게 3부로 나눠져 있다. 1부에서는 논쟁이 되었던 여러 쟁점을 다루었고, 2부에서는 황우석 사태의 진행 과정과 이후의 변화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마지막 3부에서는 시민 단체의 활동을 바탕으로 생명공학 거버넌스 문제를 다룬다.

유전 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날로 증대되는 추세다. 저자는 일반 시민들이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

한다. 책에는 개인정보 활용 사례와 문제점 그리고 외국의 시민 참여제도 등도 소개돼 있어 생명공학 논쟁을 다각도로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생의학 연구의 상업화는 절차에 대한 여러 쟁점들을 제기하고 있다. 방법이 아닌 인체 유래 물질의 소유권을 연구자가 갖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동의는 어디까지 받아야 하는지, 정부의 연구비를 받은 기업이 결과물을 사유화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유전자를 비롯한 인체 유래 물질에 대한 특허는 후속 연구를 방해하지 않을지와 같은 근본적인 물음들을 한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알렘·1만4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유적·유물로 알아 본 선사시대 문화



한반도의 고인돌 사회와 고분문화

지건길 지음

우리나라 고고학계 권위자인 지건길 박사가 한반도의 고인돌과 고분 관련 논문을 모아 '한반도의 고인돌사회와 고분문화'를 펴냈다.

고고학, 미술사학, 역사학 등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국립중앙박물관 출신 연구자의 연구 성과를 발간하는 학술도서 '한국고고미술연구소 동원학술총서'

중 1권이다. 저자는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역임하고 현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책은 크게 '한반도의 청동기문화', '고인돌사회의 지역적 특성', '백제와 신라의 고분문화' 세 주제로 구성됐다.

한반도의 청동기문화에서는 구석기부터 초기철기까지의 집터와 무덤을 알아보고 충남 예산, 전북 정수에서 출토된 청동기 및 철기 유물들의 성격과 특징을 고찰한다. 이어 전남도 선사시대 문화를 이 지역에서 발굴된 고인돌 등의 유적과 출토된 유물로 알아보고 청동기시대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 본다. <사회평론·3만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7월18일 까지

**소파 식탁 보상판매**

쓰시던 소파 식탁을 최대 **200만원** 까지 (타사상품 포함)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동구청 옆) **홍스페이스** SPACE ☎ 1899-0240